

virtual CONVERSATIONS <" "> CULTURES ,, PRESENTERS ,,

College-level Art Education in Korea

Tai Ho Kim
Seoul Women's University

한국의 대학미술교육
김태호 (서울여자대학교)

The current system of Korean art education took shape after its liberation from Japan in 1945. Under Japanese imperialism, educational programs had been based on Japanese educational methods and practices. In the mid-1960s, artists and educators who had studied in the U.S. and Europe began to establish an academic system in the field of Korean art education based on their experiences and learning in the west. The first-generation art educators who had received a Japanese education set up this field after the liberation, and American art education influenced the next steps of this establishment process in many ways. Interestingly, the tradition of Korean painting was still the basis of art education in Korea, so it was a challenge to strike a balance between Korean traditional practices and newer western practices. To achieve this, the curriculum for painting courses consisted of a combination of western-style painting, Korean traditional painting and Korean art history. In terms of art and art education standards, the Korean field follows the west to some extent. This westernization of standards for artistic values is a critical problem.

한국의 미술교육계는 해방이후에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전 식민지 치하에서는 일본식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유럽, 미국 등지에서 공부하고 온 작가와 교육가들이 서구에서의 학습경험을 바탕으로 미술교육의 체계를 갖추었다. 즉, 초기에는 일본식 교육을 받은 1세대가 지도했고 그 이후 미국교육의 영향을 받았는데, 한국의 미술교육의 바탕에는 동양화의 전통이 깔려 있어 어떻게 서구식 교육을 우리 미술의 전통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큰 과제였다. 그래서 특히 회화의 경우, 서구식 회화교육을 동양화와 한국미술사와 어울려서 커리큘럼을 짰다.

한국의 미술계와 미술교육계는 미술의 척도에 있어 서구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 미적 가치의 기준 자체가 서구화된 것으로, 이는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술의 척도는 미학과 미술론이 그 철학적 시발점인데,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의 진 시대에 이미 예술론이 성립되어 동양사회가 유럽사회보다 그 시작이 훨씬 더 빨랐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우리 나름대로의 미적가치 판단의 기준이 필요한데, 이러한

virtual CONVERSATIONS <" "> CULTURES ,, PRESENTERS ,,

Considering aesthetics and art theories that form the standards, the east has a longer history than the west, because the "art theory" was established as early as the Chinese Jin dynasty. Koreans need our own unique standards for assessing artistic values, so quite a bit of criticism of this westernization has recently arisen. I believe that more art educators will critically review the current standards and reconsider our own Korean values, in order to go beyond western values. Many people in Korea have recently addressed the term "globalization." The real meaning of globalization is not westernization; rather, for real globalization to occur, interaction and exchange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should take place. Art educators should consider artistic standards and values from this point of view.

In Korea, the integration of new media into art education began late, compared to the west. In the late 1980s, the concept of "art and technology" began to be mentioned. However, in spite of this late beginning, interest in this new art field quickly increased with help from the developing IT industry. Korean people are good at adjusting to change. They are not afraid of discovering new things, and they work hard on integrating change into their lives.

However, while they are very willing to adjust to change, Koreans try not to lose their tradition. Therefore, I believe that

반성의 시각이 최근 많이 생겨나고 있다. 서구의 가치기준 만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미적가치 기준을 비판적으로 재고하고 우리가 지닌 것에 대해 재발견하는 노력이 앞으로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요즘 '세계화 (globalization)' 라는 개념이 많이 언급되는데, 진정한 세계화는 서구화가 아니다. 일방적인 영향과 변화가 아니라 상호간의 작용에 바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미술의 가치기준을 논의하고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매체에 대한 반향과 시발은 서구에 비해 우리 미술교육계가 늦은 편이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미술과 테크놀로지 (art and technology)' 개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작은 비록 서구에 비해 늦었지만 한국이 최근 IT강국으로 급상승하면서 미술계에 서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특히 개인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빨리 새로운 것을 찾고 받아들이는데 두려움이 없으며, 특히 새로운 것을 자기화하는데 강하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전통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국민성을 생각해 볼 때, 미디어 아트 및 컴퓨터 아트 분야에 대한 우리 미술과 미술교육의 가능성이 무척 크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영역에 있어서도 서구의

virtual CONVERSATIONS <" "> CULTURES ,, PRESENTERS ,,

Korean art and art education have great potential for media art and computer art. An important aspect is that we must not follow the western framework for media art education, but we must develop our own curriculum for unique Korean art educational practices.

The Korean College Art Education Association, for which I worked as the founding president, was established by a group of art college professors wishing to promote college-level art education and to bring change to the current field. The association organizes academic conferences and focuses on curriculum development, embracing current issues. It also attempts to connect students at school – mostly graduate students – to the art world by offering them opportunities to exhibit their work.

Recently, the association's members started to participate in the operation of a museum (SOMA). Through museum work, we want to help students become involved in activities in the art world. For fine art majors, making a living is very difficult. Colleges should be able to assist them in acquiring skills for survival and success as artists. Therefore, a need has emerged for a practical art curriculum; the college-level art education field must conduct more research on this aspect and involve these practical aspects in their curricula. The activities of the Korean College Art Education Association are part of this attempt.

미디어 아트 교육의 틀을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고유한 미술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필자가 초대회장직을 역임한 바 있는 한국 대학미술협의회는 대학 미술교육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 미술대 교수들이 모여서 만든 협회이다. 여러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현실에 맞는 커리큘럼 개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대학원생 중심으로 학교와 화단을 연결하여 학생들의 화단진출을 돕는데 힘쓰고 있다. 최근 대학미술협의회에서 활동하는 대학현장의 교수들이 미술관 (SOMA) 운영을 맡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화단 진출의 길을 열어주는 기회 제공을 돕고자 한다. 순수미술 전공자들에게 있어 생계유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작가들을 위한 정부적 차원 및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발달되어야 한다. 작가가 되기 위한 최소의 필요충분요건을 갖추기 위한 발판을 학교에서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실질적인 미술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고, 대학차원에서의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미술협회의 활동도 이런 노력 중의 하나이다.